

“미, 이란 핵 완전파괴 못했다…수개월 퇴보 시켰을 뿐”

미국 국방부 정보 담당 평가 ‘전면 파괴’ 트럼프 주장과 상충 구체적 피해 파악 시간 걸릴 듯

미군이 지난 21일(미 동부시간) 이란 핵시설 3 곳을 병커버스터 등으로 타격했지만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미국 국방부 정보 당국의 1차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들은 24일 미국 국방부의 정보 담당 조직인 국방정보국(DIA)이 미군 중부사령부의 ‘전투 피해(이란의

피해) 평가’를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DIA는 미군의 공격과 그 전후 이뤄진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퇴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같은 초기 평가 내용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이란이 생산해 보유하고 있던 농축우라늄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NN은 전했다.

농축우라늄은 농축 수준을 높일 경우 ‘핵무기 원료’가 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5월말 회원국들에 회람한 비밀 보고서에서 이란이 5월 17일 기준으로 60% 농축우라늄을 총 408.6kg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핵탄두 9~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

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한 소식통은 우라늄을 농축하는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가 대체로 보존됐으면서 “DIA의 평가는 미국이 아마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대 수개월 퇴보시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현재 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초기 평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미군의 공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면 파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21일 대국민 연설)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NYT도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량의 많은 부분을 공습을 당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DIA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이란 공격 이전 미국 정보 조직들은 ‘만약

이란이 서두를 경우 핵무기 보유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으나, 대이란 공격후 DIA보고서는 이란 핵 계획이 지연되긴 했지만 지연 기간은 6개월 미만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CNN과 NYT에 따르면 DIA의 초기 평가 보고서는 3개 이란 핵시설의 피해가 대체로 지상 구조물에 국한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 인프라와, 우라늄을 폭탄 제조에 쓰이는 금속 형태 물질로 변환하는 시설 등 지상 시설들은 심하게 파괴됐다고 CNN은 소개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언론이 보도한 초기 평가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고수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NN이 보도한

DIA의 초기 평가가 “전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CNN은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우리가 본 모든 것을 근거로 우리의 폭격은 핵무기를 생산하는 이란의 역량을 괴멸했다”고 밝혔다 CNN은 전했다.

다만, 레빗 대변인은 “(DIA의 초기 평가가) 일급비밀임에도 정보 당국 내 익명의 하급 ‘실패자’에 의해 CNN에 유출됐다”고 주장해 CNN이 보도한 내용의 초기 평가보고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이처럼 백악관과 국방부 정보 당국의 이란 측 피해 관련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피해의 전모 파악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이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하우스텐보스궁에서 열린 빌럼 알렉산더 국왕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호통에 아슬아슬 휴전 이스라엘·이란 “내가 승리자”

이스라엘, 전시 제한 조치 해제…이란, 미와 핵 협상 재개 의사

중동의 두 ‘양축’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자로 단계적 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금이 남은 양측은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았다.

휴전 돌입 직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워 보복 공습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부인했으며,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도 레이더 기지를 겨냥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휴전

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고 호통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네덜란드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 도중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욕설을 섞어가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은 추가적인 교전 없이 휴전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은 각자가 이번 전쟁의 ‘승리자’라고 앞다퉈 주장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기습 공격을 결단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면서 국내에서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반면,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성명에서 “적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멈추게 만드는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 이후 ‘밀린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계를 마무리했다”며 “이제 초점은 다시 가자로 돌아간다.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고, 하마스 정권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CNN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이동과 경제 활동 등 전시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으며, 공항 운영도 전면 재개했다고 WSJ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지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 내에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 여객기 참사 희생자 259명 신원 확인

인도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여객기 추락 참사 관련 희생자들 가운데 비탐승자 19명을 포함한 259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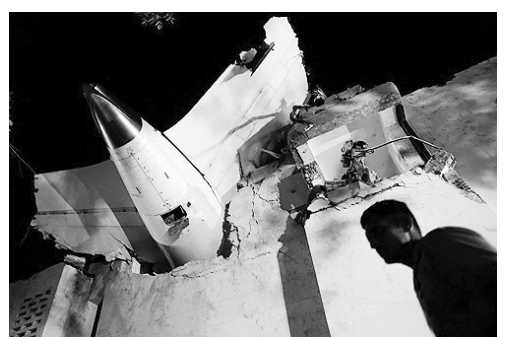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당국은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 희생자 25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253명은 유전자 정보(DNA) 검사, 나머지 6명은 얼굴 식별로 신원이 각각 파악됐다.

사고 당시 보인 787-8 드림라이너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승무원 12명 등 모두 242명이 타고 있었고, 인도 출신 영국인 1명만 극적으로 생존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259명 가운데 여객기 탑승자는 240명이며 나머지 19명은 여객기가 추락한 국립 B.J. 의대 기숙사 건물에 있던 의대생과 그의 가족 등이다. 지금까지 시신 256구가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애초 이번 참사 희생자 수가 최소 270명에 이



건물에 박힌 사고 여객기 잔해. /연합뉴스

를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날 공식 발표된 사망자 수는 현재 DNA로 신원을 확인 중인 여객기 탑승자 1명을 포함한 260명이다.

인도 당국은 여전히 최종 사망자 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케시 조시 아메다바드 시립병원장은 “추락 현장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추가 희생자가 없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최종 사망자 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분쟁지역 아동권리 침해 4만건 ‘역대 최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전쟁과 무력 충돌 속에서 아동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가 역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발표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아동권리 침해는 총 4만137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유엔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살해 및 중대한 상해 ▲납치 ▲성폭력 ▲아동 징집 ▲학교 및 병원 등에 대한 공격 ▲인도주의적 접근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아동 살해 및 중대한 상해로, 1만1967건이 보고됐다.

지역별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8544건), 콩고민주공화국(4043건), 소말리아(2568건), 나이지리아(2436건), 아이티(2269건) 순으로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최소 1938건이 확인돼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집단 성폭행 사례도 크게 늘어, 유엔이 관련 수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21년 이래 가장 많았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아이티(566건), 나이지리아(419건), 콩고민주공화국(358건), 소말리아(267건) 순이다. /연합뉴스

한 사람의 보험비로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N%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IGFA 보험GA협회